

한국판 사회적 외모불안 척도(Korean Version of the Social Appearance Anxiety Scale, K-SAAS) 타당화

이민지¹ · 김미리혜² · 김정호²

¹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²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Appearance Anxiety Scale

Minji Lee, MA¹, Mirihae Kim, PhD², and Jung-Ho Kim, PhD²

¹Department of Psychiatry,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Jeju,

²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Objective : To translate and adapt the Social Appearance Anxiety Scale into Korean and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appearance anxiety scale, which measures the fear and anxiety about being negatively evaluated by others based on one's overall appearance, including body shape.

Methods : For item translation and adaptation, six bilingual translators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forward-adaptation and back-adapt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undergraduate students. The sample size is 105 for Study 1 and 212 for Study 2. Classical item discrimination and difficulty analyse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performed.

Results : A unidimensional structure was found with a high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alpha=0.95$) and a high test-retest reliability ($r=0.918$). In addition, the concurrent validity was examined by correlations of the scale and several other scales measuring constructs related to social appearance anxiety.

Conclusion : K-SAAS appears to be a reliable and valid scale for screening and assessing social appearance anxiety. (Anxiety and Mood 2023;19(1):1-9)

KEYWORDS : Appearance; Social appearance anxiety; Social anxiety; Body shape; Body image; Scale development.

서 론

외모는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가장 분명하고 타인에게 접근 가능한 개인의 특징이다.¹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운 첫 시작으로서 외모는 사회적 장면에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특정한 상황적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최근 연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불안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사회불안이라고 제안하고 있다.^{2,3} 특히 Hart 등⁴은 자신

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는 상황적 공포가 신경성 폭식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그리고 신체이형장애와 높은 관련성을 보일 것이며, 이에 따라 외모 불안이 사회불안과 부정적 신체상 두 가지 구성개념을 모두 포함한다고 제안하였다. 섭식장애와 신체이형장애는 신체상 왜곡과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사회불안 그리고 사회적 기능의 손상과 관련이 있다.⁵ Levinson과 Rodebaugh⁶는 사회적 외모 불안이 사회불안과 섭식장애의 발병 위험요인임을 밝혔다. 임상군을 대상으로 한 Koskina 등²의 연구에서 신경성 폭식증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통제 집단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외모불안을 가지고 있었으며, Claes 등⁷의 연구에서는 섭식장애를 진단받은 여성들의 사회적 외모불안이 BMI, 마르고자 노력함, 그리고 신체 불만족과 정적상관이 있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⁸ 아울러, 섭식장애 또는 신체이형장애를 가진 임상집단에서 사회불안, 역기능적 외모 인지도식,

Received : October 7, 2022 / Revised : December 22, 2022

Accepted : December 30, 2022

Address for correspondence

Mirihae Kim, Ph.D.,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33 Samyang-ro, Dobong-gu, Seoul 01369, Korea

Tel : +82-2-901-8478, E-mail : medehae@duksung.ac.kr

신체성 왜곡이 규준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⁹⁻¹¹ 종합해보면, 외모 불안이 부정적 신체상과 사회불안의 두 가지 구성개념을 공통의 특징으로 가지며, 특정 장애들을 선별하고, 설명하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외모에 관련된 태도, 평가, 신념 등은 자기(self)와 관련된 심리적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는 제 3자의 시각을 내재화하여, 자기 자신, 특히 자신의 몸을 하나의 대상으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습관적인 외모 감시로 이어지며, 수치심과 분노, 좌절감, 불안,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¹²

이처럼 외모 불안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자기개념을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끼치며, 우울, 불안, 수치심 등의 심리적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이상 행동 섭식, 섭식장애, 신체이형장애 사회불안장애, 우울장애 등 관련 정신장애를 연구하는데 유용한 변인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외모가 평가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측정할 수 있도록 Hart 등⁴이 개발한 16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외모 불안 척도(Social Appearance Anxiety Scale, SAAS)' 원문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번안하고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원척도의 요인구조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고전적 검사관점에서의 문항난이도와 문항변별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회적 외모불안과 관련된 변인인 사회적 외모불안, 외모 도구성, 신체존중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대상 및 방법

문항 번안

Hart 등³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사회적 외모불안 척도(Social Appearance Anxiety Scale)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번안 이전 원작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Kim과 Lim¹³의 연구를 토대로 역번안 기법과 경험적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문항의 번안과 역번안 과정에는 이중언어자 총 6명이 참여하였고, 최종문항의 결정은 심리학 교수 3명이 문항을 재검토하여 총 3번의 수정 작업을 통해 확정되었다.

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2019년 6월 5일부터 2019년 9월까지 수도권에 재학 중인 전국 1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집되었다. 문항의 질(quality)을 살펴보기 위해 예비조사(Study 1)가 먼저 실시된

후 이를 바탕으로 탐색된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조사(Study 2)가 실시되었다. 이후에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IRB No. 2019-04-18-08).

측정도구

사회적 외모 불안 척도(Social Appearance Anxiety Scale, SAAS)

한국판 SAAS의 원척도는 Hart 등³이 사회적 외모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 총 16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외모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판 SAAS는 단일요인으로, Cronbach's α 는 0.94-0.95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BFNE).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BFNE)는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게 평가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평가하는 척도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atson과 Friend¹⁴가 30문항으로 개발하였던 것을 Leary¹⁵가 단축형으로 제작한 것이다.¹⁶ 이를 국내에서 타당화한 Lee과 Choi¹⁷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alpha = 0.90$ 이었고,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8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0.892이었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와 사회공포 척도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Social Phobia Scale, SPS)

Mattick과 Clarke¹⁸이 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와 사회공포 척도(Social Phobia Scale, SPS)는 사회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로, 국내에서 Kim¹⁹이 번안하여 타당화하였다. Kim¹⁹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SIAS는 Cronbach's $\alpha = 0.92$ 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918으로 나타났다. SPS는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주시 불안,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될 때 무엇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행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Kim¹⁹의 연구에서 사회 공포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0.93$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926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Social Physique Anxiety Scale, SPAS)

사회적 체형불안(Social Physique Anxiety Scale, SPAS)는 Hart 등³이 개발한 것으로 타인이 체형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를 평정하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되며 Hart 등³의 연구에서 높은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0.90$)를 보였고, 8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r=0.82$)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hoi²⁰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807으로 나타났다.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적 설문지(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MBSRQ)

Brown 등²¹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 Questionnaire (MBSRQ)은 인지-행동 이론의 관점으로 다차원적인 신체-자아의 주관적 태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외모와 관련된 3가지 척도들만을 사용하였다. Kang²²이 변안하고 사용한 것으로 외모평가, 외모태도, 비만에 대한 과민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Cronbach's $\alpha=0.88$, Cronbach's $\alpha=0.73-0.76$ 이었다.²³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각각 0.839, 0.845, 0.778으로 나타났다.

외모 도구성 척도(Body Value Inventory-Social Instrumentality-Appearance, BVI-SI-A)

외모 도구성 척도(Body Value Inventory-Social Instrumentality-Appearance, BVI-SI-A)는 Kim 등²⁴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로 개인이 가지는 도구적 측면에서 외모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신념을 측정한다.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Kim 등²⁴의 연구에서 외모도구성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0.935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0.936이었다.

전반적 신체 존중감 척도(Body Esteem Scale, KOBES)

전반적 신체 존중감척도(Body Esteem Scale, KOBES)는 신체존중감에 대한 외국척도의 문항들을 참고하여 체형에 대한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Kim²⁵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로, 사회적 외모불안과 관련이 있는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식 4단계 척도로 평정되며, Kim²⁵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외모존중감이 0.87, 체중존중감이 0.85, 체기능존중감 0.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0.854이었다.

자료 분석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 및 본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Study 1)의 자료는 신뢰도 알파 계수를 통한 내적일관성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이전의 기초적인 문항 점검으로서 고전적 검사이론 관점에서 문항 난이도, 문항 변별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변수를 범주변수로 가정하여 측정변수 간 다분상관 행렬을 분석하였다. 본검사(Study 2) 실시자료에 대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변수를 범주변수로 두고 weighted least square mean and variance adjusted (WLSMV) 추정법을 사용한 CFA with categorical variables (CCFA)을 시행하였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프로그램은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은 Mplus 7.4,²⁶ 그 외의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 등은 SPSS 22 (2013)²⁷을 사용하였다.

결 과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징

연구 참가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모든 참가자가 20대 이상의 남녀로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이었다.

상관분석과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

Table 2에 예비조사 자료의 K-SAAS의 문항 간 상관과 문항 제거 시 신뢰도가 제시되어 있다. 문항 1과 문항 9간의 유의하지 않은 상관 외에, 모든 문항 간 상관이 0.207 사이에서 0.777 사이로 $\alpha=0.05$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K-SAAS 16문항의 신뢰도 α 계수는 0.947로 매우 높았다. 문항 1과 문항 3 제거 시 신뢰도가 미미하게 향상되나, 이미 신뢰도가 높고 다른 문항과의 정적상관이 뚜렷하기에 제거하지 않았다.

고전적 문항 분석

Table 3에는 K-SAAS의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문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4, n=212)

	Male	Female
Study 1		
n (%)	42 (40.4)	62 (59.6)
Age (Mean±SD)	22.21±2.49	19.52±1.89
Study 2		
n (%)	107 (50.5)	105 (49.5)
Age (Mean±SD)	23.09±2.30	21.39±2.33

Table 2. interitem correlations reliability if an item dropped (n=104)

ite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Reliability if an item dropped
1	1																0.949
2	0.464**	1															0.947
3	0.387**	0.474**	1														0.948
4	0.289**	0.456**	0.434**	1													0.942
5	0.333**	0.444**	0.482**	0.668**	1												0.944
6	0.310**	0.400**	0.394**	0.714**	0.670**	1											0.943
7	0.411**	0.476**	0.416**	0.560**	0.565**	0.714**	1										0.944
8	0.384**	0.392**	0.314**	0.654**	0.573**	0.619**	0.599**	1									0.943
9	0.170	0.325**	0.207*	0.623**	0.392**	0.512**	0.442**	0.705**	1								0.945
10	0.333**	0.353**	0.290**	0.590**	0.470**	0.580**	0.480**	0.601**	0.557**	1							0.945
11	0.415**	0.485**	0.461**	0.645**	0.650**	0.662**	0.563**	0.655**	0.519**	0.663**	1						0.941
12	0.341**	0.354**	0.343**	0.676**	0.564**	0.595**	0.578**	0.635**	0.627**	0.543**	0.689**	1					0.942
13	0.413**	0.457**	0.425**	0.698**	0.651**	0.713**	0.643**	0.607**	0.548**	0.474**	0.747**	0.813**	1				0.941
14	0.359**	0.425**	0.360**	0.519**	0.485**	0.558**	0.557**	0.550**	0.500**	0.583**	0.721**	0.627**	0.640**	1			0.944
15	0.348**	0.353**	0.269**	0.620**	0.461**	0.507**	0.459**	0.632**	0.654**	0.599**	0.629**	0.538**	0.523**	0.603**	1		0.944
16	0.316**	0.448**	0.414**	0.777**	0.602**	0.666**	0.566**	0.572**	0.608**	0.529**	0.698**	0.764**	0.821**	0.558**	0.650**	1	0.942

*p<0.05; **p<0.01

항-총점 상관)이 제시되어 있다. 문항 난이도를 볼 때, 문항 1, 2, 3을 제외하고는 문항 내용에 동의하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지 않으나 문항의 필요성을 위협하거나 요인분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0이나 1에 가까운 문항 난이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항 변별도는 0.459에서 0.830 사이의 값으로 각 문항과 구성개념 사이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Table 4에 1-3개의 요인이 있는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의 합치도 지수, Table 5에 요인계수와 요인 간 상관이 제시되어 있다. 1요인 모형보다 2요인, 3요인 모형의 합치도 지수가 높으나, Table 5에서 요인계수 패턴과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된 요인과 관련있는 문항들이 독립적인 요인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1요인 모형은 합치도 지수가 CFI=0.974, TLI=0.969, SRMR=0.070이며, 사회적 외로불안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문항들이 설명가능하고 요인계수도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Hong²⁸과 Hu와 Bentler²⁹의 제안에 근거하여 수용가능하고 적합도가 좋은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원척도에서도 단일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단일요인이 있는 모형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Table 6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합치도 지수를, Table 7은 표준화된 요인계수를 나타낸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전체 문항을 분석한 Model 1과 전체 문항을 분석한 결과에서 문항 8과 9의 오차공분산을 추정한 Model 2, 요인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문항 1을 제거한 총 15문항을 분석한 Model 3 그리고 문항 1을 제거하고 문항 8, 9의 오차공분산을 추정한 모형 4의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다. Model 1에서 문항 8과 문항 9의 오차공분산에 대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가 96.09로 매우 컸고, 문항 내용이 매우 유사하였기에 두 문항의 오차공분산을 허용하는 모형이 추가적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로 전체 16문항을 포함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에서 CFI가 0.010, TLI가 0.011, RMSEA가 0.016이 향상되었다.

합치도는 모든 모형에서 RMSEA를 제외한 CFI와 TLI가 좋게 나타났고, 문항 1의 요인계수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문항 2, 문항 3의 요인계수가 다른 문항보다 작은 편으로 나타났다. 1번 문항의 요인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EFA의 결과 원본문과 매우 유사한 요인구조를 나타냈으며, 좋은 합치도 지수를 가지고 있었던 바(CFI=0.974, TLI=0.969, SRMR=0.070), 이 문항을 보존하고 이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에 총 16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Table 3. Classical item difficulty and discrimination of K-SAAS (study 1, n=104)

No.	Item	item difficulty* (p)	item-total discrimination* (r)
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취지는 내 모습을 신경쓰지 않는다. I feel comfortable with the way I appear to others.	0.587	0.459
2.	나는 사진 찍힐 때 신경이 쓰인다. I feel nervous when having my picture taken.	0.731	0.554
3.	나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긴장된다. I get tense when it is obvious people are looking at me.	0.558	0.497
4.	나는 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I am concerned people would not like me because of the way I look.	0.240	0.801
5.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외모에 대해 험담을 할까봐 걱정된다. I worry that others talk about flaws in my appearance when I am not around.	0.135	0.715
6.	나는 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호감'으로 여길까 봐 걱정된다. I am concerned people will find me unappealing because of my appearance.	0.125	0.774
7.	나는 사람들이 나를 매력없다고 생각할까 봐 두렵다. I am afraid that people find me unattractive.	0.260	0.716
8.	나는 내 외모로 인해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걱정된다. I worry that my appearance will make life more difficult for me.	0.135	0.762
9.	나는 내 외모로 인해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걱정된다. I am concerned that I have missed out on opportunities because of my appearance.	0.106	0.660
10.	나는 내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걸 때 긴장이 된다. I get nervous when talking to people because of the way I look.	0.115	0.684
1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불안하다. I feel anxious when other people say something about my appearance.	0.240	0.832
12.	나는 내 외모가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봐 종종 불안하다. I am frequently afraid I would not meet others standards of how I should look.	0.192	0.784
1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를 부정적으로 판단할까 봐 걱정된다. I worry people will judge the way I look negatively.	0.221	0.830
1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의 결점을 눈치챘다고 느낄 때 불편함을 느낀다. I am uncomfortable when I think others are noticing flaws in my appearance.	0.337	0.721
15.	나는 내 연인이 내 외모 때문에 나를 떠날까 봐 불안하다. I worry that a romantic partner will/would leave me because of my appearance.	0.173	0.703
16.	나는 사람들이 내 외모가 별로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된다. I am concerned that people think I am not good looking.	0.279	0.811

*Item difficulty=proportion of responses equal to or greater than 4 point; Item discrimination=item-total correlation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odel fit indices (study 1, n=104)

Model	χ^2 (df)	CFI	TLI	RMSEA	SRMR
1. Factor model	235.432 (104)***	0.974	0.969	0.110 (0.092, 0.129)	0.070
2. Factor model	173.374 (89)***	0.983	0.977	0.095 (0.074, 0.117)	0.051
3. Factor model	131.040 (75)***	0.989	0.982	0.085 (0.060, 0.109)	0.040

***p < 0.001.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reliability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SRMR, standardized root-mean-square residual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 결과

난수표로 선정된 본조사 참여자 32명에게 3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1-3번 문항을 포함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0.918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r=0.918$, $p<0.01$)를 나타냈다($N=32$).

수렴타당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BFNE와는 높은 정적 상관($r=0.698$), 사회적 상호불안과 사회공포를 측정하는 SIAS와 SPS에서도 모두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다($r=0.611$, $r=0.650$). 또한 자신의 체형이 관찰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공포를 측정하는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와도 높은 정적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actor loadings and correlation between factors (study 1, n=104)

Item	1. Factor model	2. Factor model		3. Factor model		
	Factor 1	Factor 1	Factor 2	Factor 1	Factor 2	Factor 3
1	0.514	0.194	0.425	0.809	-0.299	0.025
2	0.624	0.201	0.578	0.933	-0.205	-0.079
3	0.554	0.009	0.725	0.857	0.003	-0.339
4	0.865	0.755	0.165	0.319	0.462	0.191
5	0.797	0.449	0.477	0.619	0.309	-0.084
6	0.855	0.547	0.428	0.643	0.271	0.014
7	0.773	0.467	0.416	0.654	0.163	0.014
8	0.844	0.906	-0.078	0.444	0.007	0.552
9	0.785	1.105	-0.438	0.001	0.202	0.763
10	0.770	0.779	0.000	0.536	-0.117	0.484
11	0.863	0.707	0.227	0.601	0.130	0.259
12	0.874	0.876	0.012	0.000	0.759	0.217
13	0.942	0.804	0.204	0.213	0.790	0.001
14	0.775	0.672	0.155	0.550	0.043	0.306
15	0.792	0.924	-0.185	0.318	0.009	0.618
16	0.900	0.855	0.075	0.011	0.823	0.155
Correlation between factors		0.622		0.788		
				0.550	0.615	

Table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fit indices (study 2, n=212)

Model	χ^2 (df)	CFI	TLI	RMSEA
Model 1 (all items)	402.624 (104)***	0.963	0.957	0.116 (0.105, 0.128)
Model 2 (all items included, error covariance between items 8 & 9)	323.195 (103)***	0.973	0.968	0.100 (0.088, 0.113)
Model 3 (Item 1 excluded)	345.921 (90)***	0.968	0.963	0.116 (0.103, 0.129)
Model 4 (Item 1 excluded, error covariance between items 8 & 9)	175.881 (89)***	0.980	0.977	0.096 (0.075, 0.117)

***p<0.001. TLI, Tucker-Lewis reliability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Table 7.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study 2, n=212)

Item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all items)	(all items included, error covariance between items 8 & 9)	(Item 1 excluded)	(Item 1 excluded, error covariance between items 8 & 9)
1	0.119 (n.s)	0.121 (n.s)		
2	0.351	0.354	0.348	0.291
3	0.460	0.464	0.457	0.447
4	0.795	0.800	0.795	0.788
5	0.746	0.750	0.746	0.819
6	0.831	0.837	0.832	0.858
7	0.765	0.771	0.764	0.755
8	0.858	0.801	0.858	0.795
9	0.846	0.785	0.847	0.767
10	0.834	0.843	0.835	0.874
11	0.799	0.803	0.799	0.833
12	0.893	0.897	0.893	0.919
13	0.925	0.928	0.925	0.917
14	0.758	0.762	0.757	0.756
15	0.706	0.711	0.706	0.714
16	0.869	0.874	0.869	0.888

상관($r=0.653$)이 있었다.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적 설문지(MBSRQ)의 하위척도 중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과 만족감을 나타내는 외모 평가 하위척도(AppEval)와는 중간 정도 수준의 부적상관($r=-0.473$)을 나타냈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는 성향과 노력을 측정하는 외모 태도 하위척도(AppOrien)와는 낮은 정적 상관($r=0.290$)이 있었다. 자신의 체중이나 체중에 대한 경계, 식이 제한에 대한 불안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비만에 대한 과민 하위척도(Owpreoc)와는 척도 중 가장 낮은 상관($r=0.194$)이 관찰되었다. 외모 도구성 척도(BVI)와는 낮은 정적 상관($r=0.302$)이 있었고,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BES)의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 하위척도와는 중간 수준의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0.594$).

고 찰

본 연구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Hart⁴이 개발한 도구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해당 척도가 원척도와 동일한 1요인 구조임을 확인하였고, 내적 합치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조사($\alpha=0.947$)와 본 조사($\alpha=0.932$)에서 높은 내적 일치 신뢰도를 보여주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한국판 SAAS가 사회적 외모불안이라는 구성개념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측정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문항 1의 요인계수는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나, 예비조사의 결과의 요인계수가 원척도의 타당화 논문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고, 모형의 합치도 지수가 적합하였다. 이에 확인적 요인분석 시에는 총 16문항을 모두 포함하였고, 내용의 유사성이 높았던 문항 8과 9의 오차 공분산을 허용한 모형²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공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판 SAAS와 다른 관련 척도와의 상관분석 결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FNE), 사회적 상호불안 척도(SIAS), 사회공포척도(SPS)와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판 SAAS가 사회불안과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SPAS)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는데, K-SAAS가 측정하는 전반적인 외모에 체형의 범위도 포함하여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사회불안과 부정적 신체상 두 가지 구성개념을 공통으로 가지며, 사회불안이 신체상과 관련된 특정 장애들과의 높은 상관을 지닌다는 Cash와 Labage,⁸ Hinrichsen 등,¹¹ Pinto와 Phillips,¹⁰ Coles 등⁹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의 척도가 관련된 변인들을 포함하여 특정 장애를 선별하는 타당하고 유용한 도구임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사회적 외모 불안이 외모에 대한 인식이나 신념 보다는 자아 전반에 걸친 자기 인식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적 설문지(MBSRQ)의 하위척도인 외모평가(AppEval)와는 중간의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외모 태도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며, 관심을 가지고 외모 관리 행동을 하는 성향을 나타내며, 외모 평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을 측정한다. 이는 외모 불안이 자기(self)가 타인에게 관찰되고 하나의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성이 높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사회적 외모 불안이 신체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외모를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 상관 분석 결과, 비만과민척도와 가장 낮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비만과민척도(OwPreoc)는 체중과 관련된 과민한 정도를 측정하며, K-SAAS가 전반적인 외모에 대한 척도임을 고려할 때, 비만이 아니어도 외모불안을 느끼거나, 정상 체중이더라도 신체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외모 불안이 자신의 체형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외모 전반을 측정하는 개념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부정적 신체상과 사회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원논문에서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사회적 외모불안은 신체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외모에 대한 개념이며, 자기 인식과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외모가 평가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사회적 외모불안 척도 원문을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자가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대학생 집단으로 한정되었는데 이는 원척도 개발을 원척도를 개발한 선행연구와 일치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K-SAAS가 다른 연령대, 직업군을 대상으로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인지 검증하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K-SAAS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였듯 사회적 외모불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체이형장애, 섭식장애, 사회불안 장애 등 다른 임상군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원척도는 전신경화증 환자, 섭식장애 여성 집단, 신경성 폭식증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바 있다.³⁰ 따라서 사회적 외모불안을 구성하

는 변인인 사회불안과 부정적신체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섭식장애, 신체이형장애 등의 정신장애의 연구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모 혹은 신체의 변형으로 인한 불안을 겪을 수 있는 전신경화증, 항암요법환자 등이 경험할 수 있는 우울, 불안, 수치심 등의 심리적 불편감을 연구하거나 관련 장애들의 선별 및 치료 효과 검증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 : 외모; 사회적 외모불안; 사회불안; 체형; 신체상; 척도개발.

REFERENCES

1. Dion K, Berscheid E, Walster E. What is beautiful is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2;24:285.
2. Koskina A, Van den Eynde F, Meisel S, Campbell IC, Schmidt U. Social appearance anxiety and bulimia nervosa. *Eating and Weight Disorders-Studies on Anorexia, Bulimia and Obesity* 2011;16:e142-e145.
3. Hart EA, Leary MR, Rejeski WJ. Tie measurement of social physique anxiety.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989;11:94-104.
4. Hart TA, Flora DB, Palyo SA, Fresco DM, Holle C, Heimberg RG. Development and examination of the social appearance anxiety scale. *Assessment* 2008;15:48-59.
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5*. bookpoint US;2013.
6. Levinson CA, Rodebaugh TL. Social anxiety and eating disorder comorbidity: The role of negative social evaluation fears. *Eating Behaviors* 2012;13:27-35.
7. Claes L, Hart TA, Smits D, Van den Eynde F, Mueller A, Mitchell JE. Validation of the social appearance anxiety scale in female eating disorder patient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2012;20:406-409.
8. Cash TF, Labarge AS. Development of the appearance schemas inventory: a new cognitive body-image assess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96;20:37-50.
9. Coles ME, Phillips KA, Menard W, Pagano ME, Fay C, Weisberg RB, et al. Body dysmorphic disorder and social phobia: cross-sectional and prospective data. *Depression and Anxiety* 2006;23:26-33.
10. Pinto A, Phillips KA. Social anxiety in body dysmorphic disorder. *Body Image* 2005;2:401-405.
11. Hinrichsen H, Waller G, Van Gerko K. Social anxiety and agoraphobia in the eating disorders: associations with eating attitudes and behaviours. *Eating Behaviors* 2004;5:285-290.
12. Fredrickson B, Roberts T.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97; 21:173-206.

13. Kim AY, Lim EY.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practice in cross-cultural test adaptation of affective measur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03;22:89-113.
14. Watson D, Friend R.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69;33:448-457.
15. Leary MR.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83;9:371-375.
16. Watson D, Clark LA, Carey G.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their relation to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88;97:346.
17. Lee JY, Choi CH.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s of Social Phobia Scales (K-SAD, K-FN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7;16:251-264.
18. Mattick RP, Clarke JC.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998;36:455-470.
19. Kim HS. *Memory Bias in Subtypes of Social Phobia*.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2001.
20. Choi YS. A test of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for social physique anxiety scale. *Korean Society For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Science* 2008;10:91-106.
21. Brown TA, Cash TF, Mikula PJ. Attitudinal body-image assessment: factor analysis of the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990;55:135-144.
22. Kang SY. *Appearance complex and body-image* [dissertation], Seoul: Catholic Univ.; 2003.
23. Cash TF. *Users manual for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Norfolk, VA: Old Dominion University; 2000.
24. Kim WS, Kwon JH, Ryu YJ. *Social Instrumentality of Appeara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Helath* 2010;15:549-568.
25. Kim WS. Korean Overall Body Esteem Scale (KOBES): Development, Validation, and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Women* 2007;12:231-253.
26. Muthén, LK, Muthén BO. *Mplus User's Guide* (7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1998-2015.
27. IBM Corp.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computer software], Version 22.0. Armonk, NY: IBM Corp;2013.
28. Hong SH.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0;19:167-177.
29. Hu LT, Bentler PM.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999;6:1-55.
30. Mills SD, Kwakkenbos, L Carrier, ME, Gholizadeh S, Fox RS, Jewett LR, et al. Validation of the social appearance anxiety scale in patients with systemic sclerosis: a scleroderma patient-centered intervention network cohort study. *Arthritis Care & Research* 2018;70: 1557-1562.

□ 부 록 □

사회적 외모불안 척도(K-SAAS)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하십시오.

No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취지는 내 모습을 신경쓰지 않는다.	1	2	3	4	5
2	나는 사진 찍힐 때 신경이 쓰인다.	1	2	3	4	5
3	나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긴장된다.	1	2	3	4	5
4	나는 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	1	2	3	4	5
5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외모에 대해 험담을 할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6	나는 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호감'으로 여길까 봐 걱정된다.	1	2	3	4	5
7	나는 사람들이 나를 매력없다고 생각할까 봐 두렵다.	1	2	3	4	5
8	나는 내 외모로 인해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걱정된다.	1	2	3	4	5
9	나는 내 외모로 인해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걱정된다.	1	2	3	4	5
10	나는 내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을 걸 때 긴장이 된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불안하다.	1	2	3	4	5
12	나는 내 외모가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 봐 종종 불안하다.	1	2	3	4	5
1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를 부정적으로 판단할까 봐 걱정된다.	1	2	3	4	5
1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의 결점을 눈치챘다고 느낄 때 불편함을 느낀다.	1	2	3	4	5
(*15번 문항은 현재 연인이 없다면, 있다고 가정하고 답하십시오)						
15	나는 내 연인이 내 외모 때문에 나를 떠날까 봐 불안하다.	1	2	3	4	5
16	나는 사람들이 내 외모가 별로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된다.	1	2	3	4	5

*역방향